

자유이념의 변모와 자유-번영의 연관성*

장 대 흥**

논문 초록 자유사상은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라는, 상충되거나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한 이념으로 분화되어 있다. 원래의 자유이념은 어떤 정치, 사회적 체제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몫, 즉,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의 사상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의 분화된 자유이념의 차이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정치성향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경제자유 수준과 경제적 성과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실증분석은 경제적 번영에서 원래의 자유이념이 천명하는 경제자유 수준과 이를 성취한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이 중요하다는 점, 반면에 이를 제약하는 이념적 성향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핵심 주제어: 자유주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0

투고 일자: 2017. 8. 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10. 9. 게재 확정 일자: 2017. 10. 13.

* 저자는 논문의 표현 방식, 편집 오류와 보완 사항에 대해 논평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아 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저자의 몫임을 밝혀둔다.

**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e-mail: dtjaang13@gmail.com

자유사상은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창의적이고, 소중한 이념적 성취의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자유이념은 혼란스럽고, 갈등과 모순의 여지가 가장 큰 이념체계라는 사실도 피할 수 없다. 이념의 중심에 있는 자유에 대한 해석과 실천방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이념은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자유의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인신보호, 표현과 결사의 자유, 언론과 정치참여의 자유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들 개념이 구체화된 정치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한 세기 전 만하더라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현재 전 세계 200여개 국가의 60퍼센트를 넘는 국가가 선거제도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은 외형적으로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나 개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 절반에 불과하고,¹⁾ 이들 국가에서 조차 점차 비자유적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자유의 경우, 이념적 혼란과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념적 주도권을 차지한 현대 리버럴리즘(modern liberalism)의 영향으로, 평등주의와 복지국가 지향적 성향, 정부개입과 규제강화와 같은 반자유적 정책이 확대되어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위협받기에 이르고 있다. 근년에 들어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두하고 있는 문화상대주의나 국수주의 성향도 그런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전보다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²⁾

이 글에서 우리는 혼돈에 빠진 자유이념의 실상, 그 원인과 영향을, 주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명확히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의 논의로부터 함의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제I절에서는 자유사상의 기원과 분화과정의 배경을 논의한다. 제II절은 현대적 자유이념의 차이와 실질적 영향력을 비교 설명한다. 제III절은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관계를 자유의 수준에 대한 국가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 제IV절은 논의의 함의와 결론을 요약하고 있다.

저자가 이 글에서 인용하거나 재구성한 자료 또는 표와 그림에 대해 미리 설명을

1) Freedom House의 World Freedom Index 2017 데이터.

2)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W. W. Norton & Co., 2007.

해 둘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통계자료나 지수는 OECD, IBRD, 헤리티지, 케이트, 프레이저 연구소가 공표한 자료에서 나왔으며, 관련된 표나 그림에 표시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을 이용해서 구성된 변수의 통계치나 그림은 본문 또는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특히 부록은 이들의 작성 방식, 지수나 변수들의 의미, 명칭과 통계적 특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가능한 원자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I. 자유사상의 기원과 변형

자유주의는 서구적인 정치경제 사상인 자유이념의 일본식 번역어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용어다. 자유를 뜻하는 단어인 liberty의 어원은 라틴어 *liber* 이다. 고대에서는 ‘속박되어 있지 아니함, 즉, 노예가 아니거나, 노예상태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주로 자유로움(freedom), 또는 해방(liberation)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중세기에서, 형용사의 형태로, ‘아낌없는’, ‘관대한’ 또는 ‘(기존의 해석 또는 질서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비정치적인 뜻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너그러운 씀씀이를 뜻하는 ‘*liberal spending*’ 이나, (신학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탐구하는 인문학을 뜻하는 ‘*liberal arts*’ 가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자유이념의 기원, 발전과정, 철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왔다.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이 글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아래에 뒤따르는 논의에서는,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견해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과 문헌을 간략히 정리하는데 그치고자 한다.³⁾ 또한,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정확한 개념전달에 미흡하거나 혼란을 주기 쉬우므로, 주로 리버럴리즘 또는 리버タリア니즘과 같은 원어가 사용될 것이다.

자유가 정치적이거나 정책적 용어로 등장하기 시기는 18 중엽 이후였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증거들이 있지만,⁴⁾ 주로 영국의 사상가들에 의해 정치경제학 사상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⁵⁾ 이 시기에 영국에서,

3) 이들 정치사상, 특히, 사회적 또는 유럽식 리버럴리즘의 이념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 예를 들어 참고문헌 중의 Adams(2001)을 참조하기 바람.

4) The Economist, The many meanings of liberalism, Johnson, June 30th, 2016.

5) Klein, Daniel, The Origin of ‘Liberalism’, *The Atlantic*, February 13, 2014. 자유사상의 파급에 대해서는 F.A. Hayek, The Transmission of the Ideals of Economic Freedom,

'liberal policy', 'liberal views', 'liberal plan', 'liberal system'와 같은 용어들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자유(liberty)라는 개념 자체의 등장은 이보다 한 세기 전 영국 내전시기에 나온 존 로크의 정치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 개념, 즉 자연권(natural right) 또는 천부적으로 부여된 권리(God-given right)로서의 자유는 사적영역(private sphere)의 존중을 고집하는 앵글로 색슨인의 전통적인 기질에 바탕을 두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 전통은 이미 수 세기 전에 대헌장(Magna Carta)에 반영되었고, 내전 말기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으로 재확인 되었다.

이런 앵글로 색슨인들의 기질은 유럽대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질이었고, 재산권과 사적영역, 법치주의, 전통과 관습법,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관행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18-19세기의 기간 중,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다듬어진 초기 리버럴리즘은 이런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거에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인 다니엘 헤넨은 자유의 정신이 원래 앵글로 색슨인들의 작품이었고, 영연방 국가와 북미를 아우르는 영어권에서 가장 잘 보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은 적어도 아래에서 논의하게 될 자유사상의 분화와 혼돈, 보수이념의 성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초기 리버럴리즘은 영국의 입헌 군주제와 의회제도 발전, 미국 혁명과 독립과 같은 정치적 발전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한 자유방임을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법치주의와 재산권보호, 작은 정부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이런 경제적 자유의 이념은 18-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자본주의 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적 변영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한편, 유럽대륙으로 번져 나간 자유사상은, 비록 이성적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영미와는 다른 궤도로 발전해 나갔다. 상대적으로 훨씬 강력한 절대왕권과 봉건제도의 압제에 눌려 있던 이들 지역에서 자유는 구체제를 타파하거나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념으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리버럴리즘은 평등 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개혁의 사상으로 이해되고, 훗날 이념의 변종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상으로 까지 발전해 나갔다. 이런 사정으로, 유럽대륙의 자유사상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리버럴리즘(social liberalism) 또는 리버럴 사

Economic Watch, 9(2), 163-169, 2012 참조.

자유사상의 파급에 대해서는 F.A. Hayek, *The Transmission of the Ideals of Economic Freedom*, *Economic Watch*, 9(2), 163-169, 2012 참조.

회주의(liberal socialism)로 불리우게 되었고, 초기 리버럴리즘은 점차 고전적 리버럴리즘(classical liberalism)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이들 두 자유사상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자유의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고전적 리버럴리즘이 자유를 어떤 강제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적 영역 또는 개인적 주권의 보장으로 보는 반면, 사회적 리버럴리즘은 이를 어떤 개인이든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의 보장으로 해석한다. 전자가 자유를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이성적 판단이나 선택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자유가 보편적 권리라는 적극적인 정의에 따라, 개인적 영역보다 사회적 이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두 개념이 서로 상충될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자가 어떤 권위적 간섭도 배제하려 하고, 개인적 주도권과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개인적 선택보다는 권리의 공평성을 우선시하므로, 사회적 간섭과 큰 정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개념은 경제적 자유를 보는 시각, 특히 전자가 재산권 보호, 후자가 분배정의를 가장 우선적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리버럴리즘은 20세기 이후, 정치적 상황의 격변에 따라, 여러 차례 분화 과정을 겪는다. 자본주의 경제가 거둔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황기마다 심화되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대해 보다 성숙한 리버럴리즘 성향의 국가들은 사회복지제도나 재분배정책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반면, 여타 국가들은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사회주의적 정책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 일어났다. 대공황을 겪은 직후, 뒤늦게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의 이름아래 실업자와 빈민 구제정책, 사회보장제도, 초 누진세(超累進稅, super-progressive tax system) 제도의 도입과 케인즈 경제정책의 실시와 같은 사회주의적 국가개입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더욱이 뉴딜정책의 옹호론자들은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리버럴리즘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리버럴리즘은 점차 원래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수십년간, 미국 정치의 주도권이 이런 정책기조를 대변하는 민주당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리버럴리즘이 사실상 유럽식의 사회주의적 리버럴리즘의 의미를 갖는 반면, 초기 리버럴리즘은 고전적 리버럴리즘으로 구별하는 관행이 굳어지게 되었다.

자유사상과 리버럴리즘의 관계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정치철학 내지 정당의 이념적 지향성이다. 새로운 리버럴리즘의 정책들이 더욱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화한 정치성향으로 변질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 초기 리버럴리즘에 충실한 정치이념의 옹호자들은 스스로를 리버타리안(libertarian)으로, 그런 이념을 리버타리아니즘(libertarianism)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리버럴리즘의 좌파적 이념성향에 반대되는 우파적 정치이념은 보수주의(conservatism)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국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보수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적 사례다.

보수주의 이념은 정교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정치철학이다. 거의 모든 보수이념이 반사회주의적, 우파적 정치이념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서구적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 류의 자유지향적 보수주의이며, 구체제 계승에 집착한다는 이념은 아니다. 특히 영미식 보수주의는 개인적 자유, 재산권 보호, 법치주의, 작은 정부의 이념에 충실한 점에서 리버타리아니즘과 겹치고, 정치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성격을 가진다. 리버타리아니즘과 구별되는 점은 정치적, 문화적 전통과 국가적 정체성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이다. 정당의 정책기조로 요약해 본다면, 영국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자유당(Liberal party),⁶⁾ 미국의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자유당(Libertarian party)의 차이로 볼 수 있을 터이다.⁷⁾

II. 자유사상의 현대적 유형: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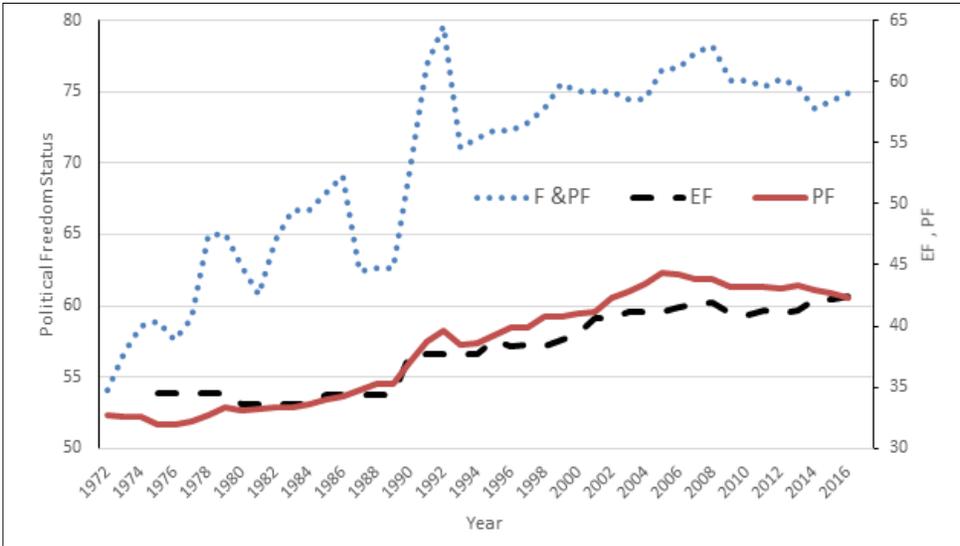
지난 반 세기의 기간 중에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비율 증가와 더불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추세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급속히 신장되었고, 특히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0년대의 초반에 절정을 이루었음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추세의 지속 여부, 자유의 상승세,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6) 흔히 토리로 알려진 보수당의 공식명칭은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이며, 자유당은 19세기에 창립된 Liberal party 가 20세기 중반에 Social Democratic party와 연합한 정당인 SDP를 지칭한다((Cannon, 2004)의 British History, 2004 참조).

7) 이들 정당의 이념적 특성과 성립과정, 미국 자유당과의 연관성은 다음 절 (특히, 각주 11, 12 참조)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한다.

자유 의 상승기조가, 이전의 대공황과 경제위기 시기에서 그랬 듯이, 2008년의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기를 기점으로 정체되거나 다소 후퇴한 조짐을 보인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뒤따른 논의는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함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림 1〉 정치적, 자유경제적 자유의 추세



주: F&PF: Percentage of 'free' & 'not free' states in Political Freedom Index.
 EF: Average of Economic Freedom Scores of Economic Freedom Index, those of Economic Index before 1995 with some modification.
 PF: Average percentage to the maximum of the inverse of Political Freedom Index.
 출처: Political Freedom Index by Freedom House, Economic Freedom Index by Heritage Foundation.

범세계적인 자유의 확대기조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불투명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기간 중에 자유 이념의 해석과 정치적 실천 방식의 분화가 극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데 있다. 경제적 자유는 원래 소극적 자유나 작은 정부와 같은 초기 리버럴리즘의 성향을 반영하는데 비해, 경제침체기에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따라서, 현대적 리버럴리즘의 성향이 커진다는 사실과 이를 정치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 국가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적 자유이념들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해 보기로 하자. 자유사상은 대부분의 근대 국가들이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이다. 리버럴리즘, 리버タリア니즘, 그리고,

보수주의는 이런 자유사상을 다른 방식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역사적 이유로, 가장 쉽게 의미전달이 되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논의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먼저 이들 이념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다른 표현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자유주의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서로 중복되거나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는 이들 이념들을 나타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리버럴리즘을 사회주의적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European liberalism, progressive liberalism), 미국식 자유주의(American liberalism)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상충되거나, 지역적 편견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 리버타리아니즘을 자유지상주의, 또는 자유지선주의라는 표현도 과장이나 주관적 편견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고전적 리버럴리즘 또는 시장 리버럴리즘(market liberalism)에 가깝지만, 국가의 지위나 역할을 훨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차이를 드러낸다.

한편, 보수주의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치철학적 기원은 영미(英美)식 전통에 기반을 둔, 지역성이 강한 이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수주의는 개인적 주권과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고, 국가적 특수성과 전통을 중시하는 데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현대적 보수주의는 수구적 보수이념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sm), 또는, 현대 보수주의(modern conservatism)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래의 논의에서 보수주의는 이런 의미의 이념을 지칭한다.⁸⁾

리버럴리즘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자유사상을 대표하는 이념의 하나로서 지위를 굳혔다. 냉전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도 사회주의적 복지-재분배 프로그램들, 친 노조 정책과 정부규제 강화, 케인즈식 경제정책과 같은 리버럴리즘 정책기조를 채택하였고, 리버럴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덕택이다. 덧붙여, 1960년대에

8) 로날드 레이건이, 1976년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자유당(Libertarian Party)의 후보가 제기한 ‘리버타리아니즘 표절론’에 대한 다음의 회신은 보수주의, 리버럴리즘과 리버타리아니즘의 성격에 대한 논쟁의 본질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나는 리버타리아니즘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 왔습니다. 그 표현에서 리버타리아니즘은 소문자 ‘l’로 시작하였고, 귀하의 정당명칭인 자유당(Libertarian Party)과는 관련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내가 말한 어떤 것도 자유당 당원에게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믿지 않지만, 개인적 자유에 대한 보수주의적 접근방식은, 리버럴들(the liberals)의 큰 정부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본인의 그런 용어 사용은 정당하다고 믿습니니다....’

는 반(反) 인종차별, 페미니즘, 성적 평등,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민권운동이 격화되면서, 리버럴리즘은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된 문화적 리버럴리즘(cultural liberalism)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현대 리버럴리즘(modern liberalism)은 1970년대의 절정기에서 친 좌파적, 친 사회주의적이며,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념 성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과잉복지, 과도한 정부 개입, 사적 영역의 축소, 경제적 자유의 훼손과 같은 리버럴리즘의 문제점들이 경제적 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리버타리아니즘과 보수 이념의 부활, 우파정권들의 집권으로 좌파적 정책과 정부역할의 팽창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이어, 드디어 1990년대에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 사회주의의 정권들의 몰락이라는 도미노가 뒤따랐다. 좌파 사회주의 이념은 급격히 주도권을 상실하고, 리버털이나 리버럴리즘은, 기괴 수준의 용어로 전락하였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확산되어 갔다.

한편, 탈규제와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더불어, 20세기 후반부터, 잦은 금융불안과 이어지는 경기침체라는 부작용, 특히, 2008년에 자본주의 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와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계기로, 리버럴리즘이 재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지난 수십년간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 기술발전과 고령화, 글로벌화가 겹치면서, 고용불안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주요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평등주의는, 문화적 상대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이념적 토대위에서, 정치적,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리버럴리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리버럴리즘의 문화상대주의는 리버타리아니즘의 탈국가적 성향과 겹치기 때문에, 묘하게도 두 이념의 부분적 동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경개방 정책, 친 이민 정책, 친 국제기구 성향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편, 근년에 이런 리버럴리즘 성향의 득세에 대해,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념적 분화는, 적어도 당분간, 정치, 사회, 경제 사상의 지형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 이념은 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정치세력, 즉, 정권 또는 정당의 이념성향에 따라 실천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정권의 이념 성향은 리버럴리즘과 보수주의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의 정책 지향성에서 (<표 1> 참조), 통상 전자는 좌파적 또는 친 사회주의적 성향, 후자는 우파적 또는 친 자본주의적 성향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리버럴리즘과 보수주의 이념성향을 표방하는 정당의 명칭은 각국의 정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민주

당(Democratic party)과 공화당(Republican party),⁹⁾ 영국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과 노동당(Labor party)을 들 수 있다. 리버타리아니즘은, 이념적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2분적 구도에 편입될 수 없고,¹⁰⁾ 현실적으로 대안적인 정치세력의 이념으로 자리 잡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¹¹⁾

좌파-리버럴리즘과 우파-보수주의라는 이분적(二分的) 구분은, 다소 단순화한다는 위험은 따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정당의 정강이나 <표 1>과 같은 정책 지향성으로 정권의 성격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이는 공적기관의 분류¹²⁾나 통념과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자유의 평가항목은 리버럴리즘과 보수주의 이념성향의 차이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헤리티지-월 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작성, 발표하는 경제자유 지수의 예를 들면, 12개의 평가 항목들 중, 사법제도의 유효성(legal effectiveness), 정부 청렴성(government integrity), 재정건전성(fiscal health)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인 재산권(property rights), 세금부담(tax burden), 정부지출(government spending), 기업 자유(business freedom), 노동(시장)자유(labor freedom), 통화관리 자유(monetary freedom), 무역자유(trade freedom), 투자자유(investment freedom), 금융 자유(financial freedom)가 모두 좌파-리버럴리즘 성향이 강할수록 낮게 평가된다.

-
- 9) 미국의 정치사와 정당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들(예를 들어 (Critchlow, 2015))이 있다.
- 10) 리버타리아니즘은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보수주의와 같거나 더 강경하지만, 사회적, 종교적 이슈에서는 리버럴리즘보다 더욱 리버럴한 입장을 취한다(<표 1> 참조). 후자의 입장은, 리버럴리즘이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나 평등주의(egalitarianism)에 입각하는데 비해, 리버타리아니즘은 보편적 자유를 중시하거나, 탈국가주의적 성향(mini-anarchist preference)을 가지는 데서 나온다.
- 11) 리버타리아니즘 정당으로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유일한 경우인 영국의 자유당(Liberty Party)은 18세기-19세기에 막강한 지위를 누렸지만,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고, 사회민주당과의 연합시기를 거쳐, Liberal Democratic Party, Libertarian Party이라는 군소정당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미국의 Libertarian Party도 1972년에 등장한 이후, 주목할 만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단 리버타리안(Paleo-libertarian) 또는 무정부적(Anarcho-libertarian) 성향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다(James Kalb, 참고문헌 중).
- 12) 예를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분류하여, 우파(=1), 중도(=2), 좌파(=3)로 지수화 한다(World Bank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Code Book).

〈표 1〉 주요 현안에 대한 이념적 견해 차이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
적극적 자유, 평등주의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배척
정체성중심 정치 (identity politics)	옹호	중립적	반대/배척
큰 정부, 정부 지출, 시장 규제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배척
소극적 자유, 경제적 자유, 자유무역	미온적/중립적	지지/옹호	지지/옹호
문화적 상대주의, 정치적 올바름	지지/옹호	중립적	반대/배척
치안/질서 유지, 반테러 정책	미온적/중립적	중립적	지지/옹호
금융/은행 규제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배척
자유 은행/통화 제도	반대/배척	지지/옹호	반대/배척
재량적 통화정책	지지/옹호	반대/배척	중립적
누진세, 법인세, 상속세 유지/확대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중립적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확대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배척
최저임금 보장/인상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배척
친 노조 정책, 노동시장 규제	지지/옹호	반대/배척	반대/배척
친 이민 정책, 이민 무제한/국경개방	지지/옹호	지지/옹호	미온적/중립적
제한적 이민, 불법이민 단속, 이민 보호구역(sanctuary city) 폐지	반대/배척	반대/배척	지지/옹호
무슬림 이민/난민 제한	반대/배척	반대/배척	지지/옹호
친환경/청정에너지 정책	지지/옹호	미온적/중립적	미온적/중립적
낙태 (임신중절)	지지/옹호	지지/옹호	반대/배척
동성간 결혼, 성적 소수자 지원 정책	지지/옹호	지지/옹호	반대/배척

정권의 이념성향과 경제적 자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인 1995년-2016년의 기간 중에 적어도 2번 이상의 정권 교체가 있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높은 OECD 국가들이다. 그러나, 보다 확대된 샘플의 경우도 분석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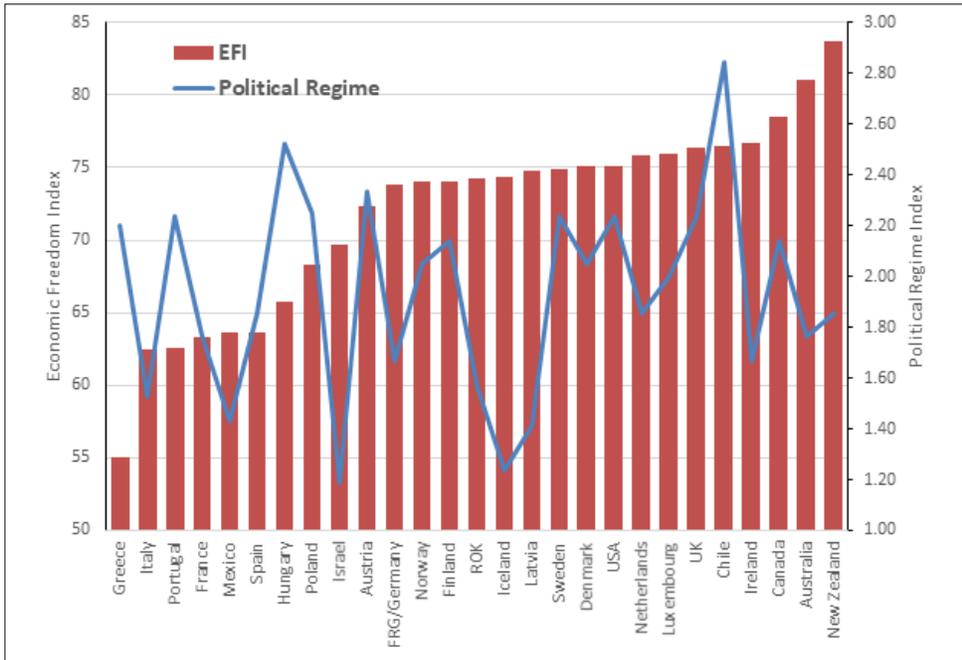
먼저, 〈그림 2〉는 해당 국가의 연도별 정권 이념지수 (우파 정권 1, 중도 정권 2, 좌파 정권 3)를 가중평균한 값을 전반적인 이념성향지수로 보고, 이를 경제자유 지수와 대비해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이념성향과 경제적 자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권의 같은 이념성향이 유지된 기간 중에 도달한 경제적 자유의 최고 수준을 측정¹³⁾ 다음의 결과인 〈그림 3〉을 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다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난다. 즉,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모

13) 연도별 정권이념지수가 4년이상 지속된 기간 중, 경제적 자유지수의 이동평균치.

든 국가에서, 좌파-리버럴 정권의 집권시기에서 우파-보수 정권의 경우에 비해 경제적 자유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관찰 결과가 경제적 자유지수 수준에 대한 이념성향지수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 지수가 상관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기에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제자유 지수의 경우, 다수의 비경제적 변수들이 포함된 복합지수일 뿐 아니라,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이나 인과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의 함의를 찾아볼 것이다.

〈그림 2〉 정권유형과 경제자유지수(E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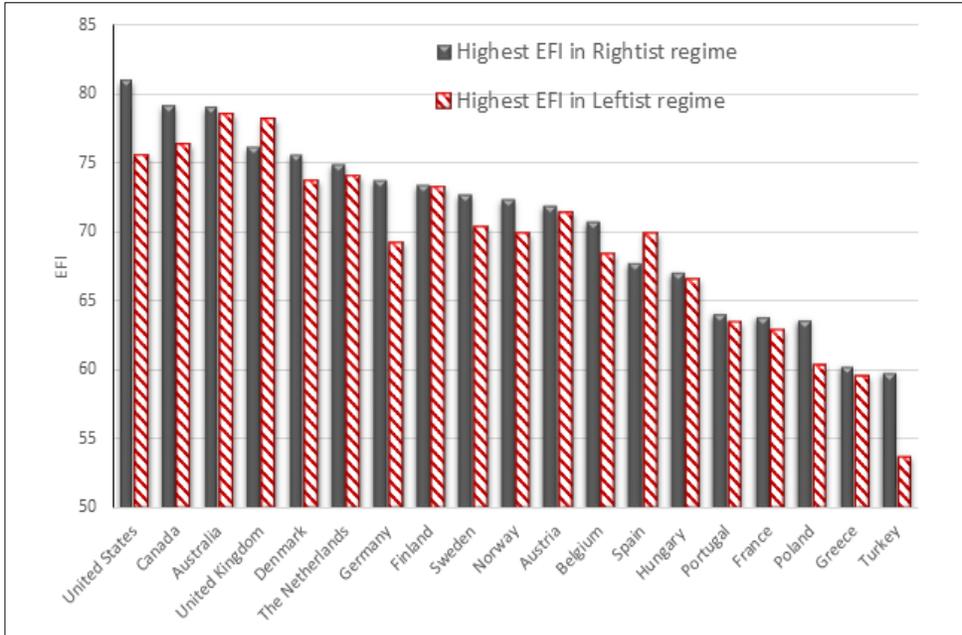


주: Political Regime: Wegtred Average political regime indices 1995-2015, Right Wing regime=1, Left Wing regime=3.

EFI: Economic Freedom Index of Heritage Foundation 2017.

출처: World Bank Data Base DPI, Economic Freedom Index of Heritage Foundation.

〈그림 3〉 이념지속 기간 중 경제자유의 최고 수준



주: Political Regime: Weghted Aaverage political regime indices 1995-2015, Right Wing regime=1, Left Wing regime=3.

EFI: Economic Freedom Index of Heritage Foundation 2017.

출처: World Bank Data Base DPI, Economic Freedom Index of Heritage Foundation.

Ⅲ. 자유와 번영의 연관성: 실증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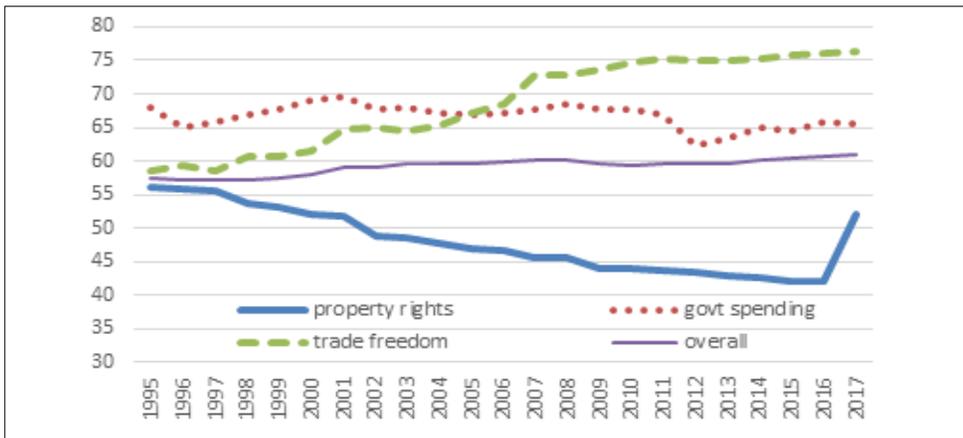
자유와 번영의 관계를 한 국가나 사회의 틀 안에서 논증 또는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유가 쉽게 정의, 측정되기 힘든, 추상적, 복합적인 개념들인 데다가,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지역적, 정치적 특수성의 바탕 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 연관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국가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유의 수준과 실적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방법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로 경제자유도의 수준과 경제성과의 연관관계를 횡단면 분석의 방식으로 검증하는 일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따를지 모르지만, 자유사상들의 차이점, 특히, 자유사상을 대변하는 리버럴리즘, 리버タリア니즘, 보수주의의 실천적 성과나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가려내고, 새로운 함의를 찾는 계기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할 터이다.

먼저 자유수준의 기준이 되는 자유지수의 측정과 특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치자유 지수, 경제자유 지수, 인간자유 지수와 같은 지수는 기본적으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평균한 값이다. 따라서, 평가항목간의 중복,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부분적으로 상호 상관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14) 또한, 경제자유 지수의 구성항목이 다른 항목이나 전반적 자유의 수준과 다른 분포를 가지거나, 지역별로 상반되는 변화 추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지난 수 십년간 무역자유와 같은 대부분의 항목별 자유의 수준은 전반적 경제자유 지수와 함께 향상되어 왔다(〈그림 4〉 참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무역자유화, 정치자유화와 더불어 진행된 개방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유수준의 향상은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이나 보수주의의 이념적 성향에 모두 부합한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정부지출에서 자유수준은 후퇴하거나 정체하였고, 재산권 부문에서는 오히려 자유수준이 하락하였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환경정책의 강화, 이에 따른 정부 규제와 역할의 증대가 주요 요인인 걸로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작은 정부와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리버타리아니즘이나 보수주의의 이념과는 배치되고, 그 정도는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사적 영역보다는 사회적 개입정책이나 정부역할의 확대를 옹호하는, 즉, 리버럴리즘 성향이 강한, 국가들에서 자유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항목들의 자유수준 향상이 훨씬 크다면, 전반적 자유지수는 커질 것이다.

〈그림 4〉 경제자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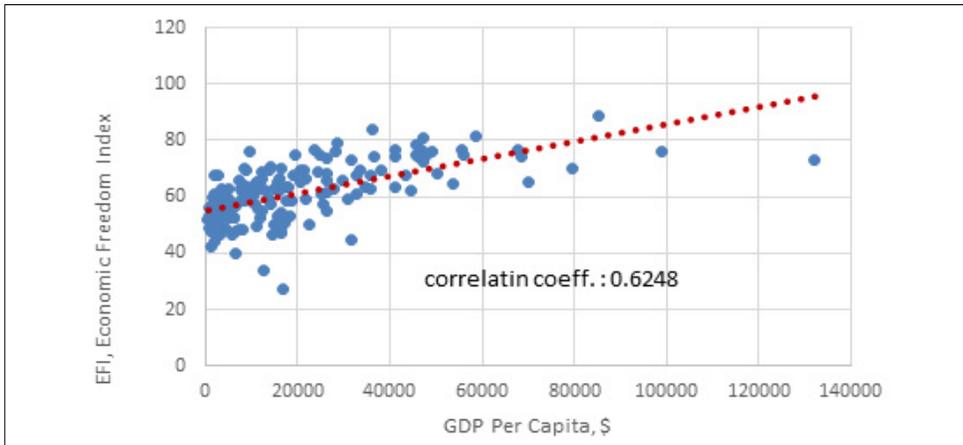


출처: Heritage Foundation.

14) 자유지수들의 특성, 구성항목과 상호 연관성은 부록: 통계자료의 출처와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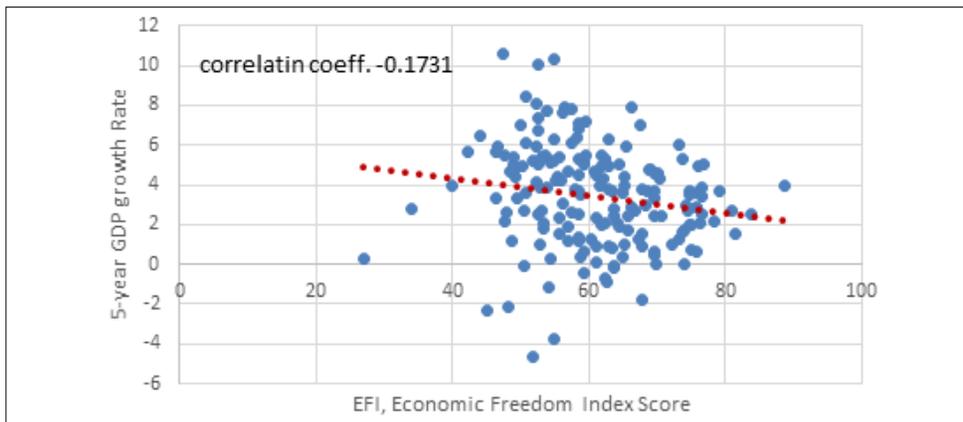
각 국가의 2016년도 경제적 자유의 수준과 성과를 대비해 본 결과는 <그림 4>,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자유는 1인당 국내소득과 비교적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소득성장률과는 아주 약한 부(否)의 상관관계임을 드러내는데, 이는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불분명하고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자유이념-경제적 성과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 지수를 중심 설명변수로 하고, 연관성이나 중복의 가능성이 약하거나 적은 항목 또는 관련 변수 가장 약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 1인당 GDP와 경제자유



출처: Heritage Foundation.

<그림 6> GDP 성장률과 경제자유



출처: Heritage Foundation.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자유이념의 해석과 실천방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일이다. 헤리티지의 경제자유 지수를 구성하는 12개의 항목은 경제적 성과에 연관된 요인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사실상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소극적 자유이념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항목의 개별 점수나 자유지수가 높을수록, 이런 자유이념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세금부담, 정부지출의 비중이 낮을수록, 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 노동, 금융 부문의 자유가 클수록 자유지수가 높게 평가된다는 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리버타리안 또는 보수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반면에, 리벌럴리즘 성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 유효성, 정부 청렴성, 재정건전성과 같은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이런 자유수준의 이념적 차이는 단정하기 어렵거나, 불분명해 보인다. 이는 평가항목들의 통계적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부록 <표 A2> 참조)에서도 드러난다.

경제자유 지수가 자유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적 평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 교육기회, 종교적 자유, 성적 또는 인종 차별, 이민의 자유와 같이 주로 시민적 권익이나 평등의 수준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민적 권리는 리벌럴리즘의 가장 중요한 성향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다른 자유이념에서도 중시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에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된 결과로 참정권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적 권리의 차이는 크게 감소한 걸로 보인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자유이념의 실천적 차이를 구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정책의 기초변화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점은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특히 지난 10여년의 기간 중에, 리벌럴리즘의 정치성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래의 분석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정책기조를 기간 중 집권정부의 이념성향에 따라 구분하였다(부록 <표 A3> 참조).

경제적 성과나 경제자유에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의 역할이다. 대다수의 선진경제는 적어도 수십년간의 경제성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업가 정신과 자율적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특질들이다. 고전적 자유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재산권 보호도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특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재산권을 중시하는 앵글로 색슨인의 뿌리깊은 전통은 영어권 국가에서 관습법 체제와 함께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질이다.

경제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수준과 관련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경제성과의 관

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모형은, 기존 연구들(Barro, 1996; Easton and Walker, 1997; Grubel, 1988)에서 검증된 경제성과의 설명변수들을 사용하는 대신, 자유지수를 이들 변수들의 복합적인 대용변수로 활용하였고,¹⁵⁾ 최근년도에 대한 횡단면 분석모형¹⁶⁾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은 피설명변수인 1인당 GDP이나 GDP 성장률에 대한 자유수준의 설명력을 국가 간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유지수가 중복되는 부분, 항목 간 또는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크거나, 설명력이 약한 경우는 분석에서 배제하거나, 결과보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념성향,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국가별 자료가 없으므로, 명시적인 요인의 변수 대신에 국가 특성의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대부분이 직관과 잘 부합하는 걸로 보인다. 1인당 GDP에 대해서 경제자유 지수(EFI)는, 거의 모든 경우에, 통계적으로 큰 유의수준에서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드러낸다. 반면에, 정권의 좌파성향(PREG)은 통계적으로 큰 유의수준에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경제자유와 치안부문을 제외한 인간자유 수준(PERF-S)은 불분명하거나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OECD 국가나 영어권 국가의 경우에(D_OECD, D_ESR), 높은 정의 상관관계는 경제발전의 축적된 경험이나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경우는 유의수준이 약하고 경제자유와 상반되거나, 설득력이 불분명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아마도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GDP 성장률의 경우는, <그림 5>가 시사하는 대로, 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지는데,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권의 좌파성향은, 1인당 GD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큰 유의수준에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반면에 경제자유 지수는 모형에 따라 정반대이거나 불분명한

15) 자본축적량, 인적자본, 경제/법/통화 제도나 화폐/재정정책/재산권 보호의 우수함, 조세부담, 거래자유 수준, 등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검증한 결정요인들은 거의 모두 자유지수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Heritage, 2016; Barro, 1998; Grubel, 1988 참조). 이처럼 자유지수 자체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모형(Grubel, 1988; Hanson, 2000)은, 이들 개별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별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자유수준의 설명력을 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16) 자유수준은 단기간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이므로, 특정연도에 대한 횡단면 분석모형은 충분히 설명력을 가진다. 이 글에서 인용된 기존연구들을 포함한 다수의 자유-경제성과의 연관성 분석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2〉 경제성과와 자유지수: 회귀분석

		종속변수: GDP per Capita (M1-M8), \$ and 5-year GDP growth, % (M9-M15)									R-sqd
		EFI	PERF-S	PREG	D_OECD	D_ESR	CIVIND	GOVINT	TAXBP	GEXPP	n_obs
M1	Coeff	13499.816		-1815.412	988.192						0.442
	(t-value)	3.881		-0.709	7.130						176
M2	Coeff	21460.057		-4491.988	277.691						0.651
	(t-value)	6.398		-1.669	9.994						176
M3	Coeff	16637.490	-1393.850	-1904.115	1184.280						0.477
	(t-value)	4.038	-0.500	-2.447	7.631						155
M4	Coeff	26045.890	-3317.420	-3065.302	601.261						0.694
	(t-value)	7.036	-1.141	-3.968	7.348						155
M5	Coeff	1474.699		-260.367			1408.039	-2352.068			0.414
	(t-value)	1.723		-2.317			9.507	-0.894			176
M6	Coeff	2630.839					463.709	67.371	724.001		0.531
	(t-value)	3.179					2.470	0.520	6.491		176
M7	Coeff	646.048	7780.469	-1829.542	-2123.721					1261.600	0.556
	(t-value)	5.154	1.862	-0.710	-2.947					8.747	155
M8	Coeff	6651.840	-1956.126	-3209.118	1315.503	725.909				6599.298	0.553
	(t-value)	1.571	-0.748	-2.634	8.529	5.526				0.946	155
M9	Coeff	0.433		-1.441	0.676		0.033				0.185
	(t-value)	3.609		-2.592	1.751		1.496				176
M10	Coeff	-0.025									0.131
	(t-value)	-1.287		-1.696	0.555			0.032			176
M11	Coeff	-1.775	0.736	-0.220	0.023						0.182
	(t-value)	-2.974	1.824	-1.956	1.019						155
M12	Coeff		0.753	-0.255	-0.077					-0.521	0.270
	(t-value)		1.990	-1.518	-4.088					-0.876	155
M13	Coeff		0.813	-0.340						-0.082	0.266
	(t-value)		2.187	-2.489						-4.498	155
M14	Coeff		0.920	-0.105					-0.099		0.257
	(t-value)		2.457	-0.605					-4.261		155
M15	Coeff		-0.556	0.382	-0.263	0.743				-0.077	0.270
	(t-value)		-0.921	0.375	-1.549	1.953				-4.004	155

주: 변수에 대한 상세 설명과 기술통계는 부록 참조.

M2 & M4: No-constant regression, n_obs: 관측치 개수

변수설명:

EFI: 경제자유지수 Economic Freedom Index, Heritage-WSJ. CIVIND: 시민자유지수 Civil Liberty Index, Freedom House. PERF-S: 안전을 제외한 개인자유 지수 Personal Freedom minus Security Index, Cato Institute. GOVINT: 정부청렴성 점수 Government Integrity Score, Heritage-WSJ. PREG: 정권 유형 더미변수 Political Regime Dummy, Socialist/Liberal Regime (= 1). TAXBP: 조세 부담율 Tax Burden as % of GDP, Heritage-WSJ. D_OECD: OECD 국가 더미변수 Dummy for OECD countries (=1). GEXPP: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Government Expenditure as % of GDP, Heritage-WSJ. D_ESR: 영어권 국가 더미변수 Dummy for English-heritage countries (=1).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후자의 결과는 아마도 이미 높은 소득수준을 성취한 국가에서 성장속도가 낮아지는 경향, 그리고, 경제자유와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보다 커지는 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이점은 경제자유지수를 뺀 다른 모형, M11-M15, 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이들 모형의 결과를 보면, 좌파성향은 대체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낮은 경제자유와 치안부문을 제외한 인간자유 수준 (PERF-S)은 유의적이며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OECD 국가는 유의적이며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영어권 국가는 유의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조세부담률이나 정부지출 비율은 유의적으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드러낸다.

IV. 맺는 말

자유이념은 지난 한 세기의 기간 중에 전체주의 체제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확산시킨 주역이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자유이념은 크게 보아 리버럴리즘, 리버타리아니즘, 보수주의으로 분화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상반되거나 때로는 적대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각각 자유의 범위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원래의 자유이념은 자유를 어떤 정치나 사회적 체제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몫이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이라는 사상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오늘날의 분화된 자유이념의 차이도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개인영역이 얼마나 잘 보전되는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정치성향의 좌편향이 얼마나 큰 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런 차이는 경제자유 수준과 경제적 성과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이 글의 실증분석은 경제적 번영에서 경제자유 수준과 이를 성취한 역사적 경험이나 전통이 중요하다는 점, 반면에 이를 제약하는 이념적 성향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자유와 번영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 이들 문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의 논의와 분석은 자유이념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할 경우에 초래될 기회비용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다.

■ 참고 문헌

1. 복거일, 『한국의 자유주의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CFE_지식_14-001, 자유경제원, 2014.
2. 장대홍, “자유와 역설: 자생적 질서와 경제적 미래,” 『자유와 시장』, 제7권, 29-6, 2015.
3. _____, 『자유와 함께하는 여정』,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5.
4. Adams, Ian, *Political Ideology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5. Barro, R.,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P 5698, 1996.
6. 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in I. Berlin, *Four Essays on Liber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Edition in Berlin 2002, 1969.
7. _____, ‘From Hope and Fear Set Free’, in I. Berlin, *Concepts and Categories, Philosophical Essays*, ed. H. Hardy, London: Hogarth Press; Oxford, 1980. Reprinted in Berlin 2002, 1978.
8. _____, *Liberty*, ed. H. Har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9. Boaz, David, *Libertarianism: A Primer*, The Free Press, 1997.
10. Cannon, John, ed. *The Oxford Companion to British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1. Critchlow, Donald T. *American Political Hist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12. DiZerega, Gus, “Toward a Hayekian Theory of Commodification and Systemic Contradiction: Citizens, Consumers, and the Media,” *Review of Politics*, Vol. 66, No. 3 (Summer), 2004 pp. 445-468.
13. Eamonn Butler, *Classical Liberalism: A Primer*,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2015.
14. Easton, S. and M. Walker, “Income, Growth, and Economic Freedo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28-333.
15.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Freedom: Illiberal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W.W. Norton & Co., 2007.
16. Friedman, Milt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Political Freedo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17. Grubel, H. G., “Economic Freedom and Human Welfare: Some Empirical Finding,” *Cato Journal*, Vol. 18, No. 2, 1988.
18. Hannan, Daniel, *Inventing Freedom: How the English-Speaking Peoples Made the Modern World*, Harper Collins Publishers.
19. Hanson, J. R., “Prosperity and Economic Freedom: A Virtuous Cycle,” *The Independent Review*, Vol. IV, No. 4, July 2000.
20. Hayek, F. A. von,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0.
21. _____,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Vol. 2 of *Law, Legislation, and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22. _____,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In *New Studies in Philosophy*,

-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179-9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23.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2017, Published in 2016.
 24. Klein, Daniel, *The Origin of 'Liberalism'*, The Atlantic, February 13, 2014.
 25. Kalb, James, *Tyranny of Liberalism*, ISI Books, 2008.
 26. Locke, John,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eter Laslet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1689], pp.283-446.
 27. _____,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Peter Laslett,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1689], pp.283-446.
 28. Madison, James, *Mind of the Founder*, Edited by Marvin Meyers,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81.
 29. Miller, D., "Constraints on Freedom," *Ethics*, 94, 1983, pp.66-86. Partial Reprint in 2nd ed. of Miller 1991.
 30. North, D. C. and R. P. Thomas, "The Rise of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31. Polanyi, Michael., *Two Kinds of Order, The Logic of Liber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32. Publius, *Federalist Papers, Edited by Clinton Rossiter*, New York: Penguin, 1961.
 33.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Routledge, 1943.
 34. Sen, A., *Rationality and Freedo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35. Smith, Adam, "Justice and Beneficence,"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Classic, 1976.
 36. Taylor, C., "What's Wrong with Negative Liberty," in A. Ryan (ed.), *The Idea of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ed in Miller 1991, 1979.
 37. Teulings, C. and R. Baldwin, "Secular Stagnation: Facts, Causes, and Cures," Ed. by Teulings, C. and R. Baldwin Vox EU.org Book, CEPR Press.
 38.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Vol. 1. New York: Schocken, 1961.

부 록: 통계자료의 출처와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

논문에서 사용된 정치자유지수와 정치/정권 성향, 경제자유 지수와 지표, 개인 및 인간 자유 지수, 거시경제 지표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출처와 특성,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유지수와 정(치)권 성향

정치자유는 프리덤하우스가 발행하는 정치자유 수준에 대한 국가별 서베이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는 정치권리 지수(PR, Political Rights)와 시민자유 지수(CL, Civil Liberty)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1(= most free) - 7(=least free)으로 등급화 되어 있다. 두 지수의 평균값이 3.0 - 5.0이면 '부분적 자유(PF, partly Free)', 5.5 - 7이면 '자유가 없는(NF, Not Free)', 1 - 2.5이면 '자유로운(F, Free)' 국가로 분류된다.

정(치)권 성향은 집권 정당 또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의미하며, 좌파-리버럴 성향과 우파-보수 성향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집권 정당의 이념성향이 사회주의적, 또는 리버럴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사회주의 체제나 헌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월드 뱅크의 DPI(Data Base for Political Institutions)의 분류기준에 따랐으며, 자료가 미흡한 경우, OECD나 국가별 자료를 원용하였다.

경제자유 지수와 지표

경제자유는 Heritage Foundation-Wall Street Journal이 공동으로 작성, 발표하는 EFI(Economic Freedom Index)를 따랐으며, 1995년 이전의 경우,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들 두 지수는 모두 자유의 수준을 최저 0에서 최고 100으로 점수화한 지수이다. EFI는 개별 평가 항목의 점수를 평균한 값이며, 구성 항목은 재산권, 세금부담, 기업자유, 금융자유를 포함한 12개(property rights, judicial effectiveness, tax burden, government spending, fiscal health, business freedom, labor freedom, monetary freedom, trade freedom, investment freedom, financial freedom)를 포함하고 있다. Fraser Institute의 지수도 대체로 유사하다.

개인 및 인간 자유 지수

인간자유 지수(Human Freedom Index)는 케이트 연구소가 작성, 발표하는 종합적 자유지수를 말한다. 이 지수는 법질서와 치안, 종교, 정치, 언론, 인간관계에 관한 52개의 설문항목에 대해, 최저 0에서 최고 10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들의 평균값을 개인자유 지수(Personal Freedom Index), 여기에 경제자유 점수를 추가하여 평균한 값을 인간자유 지수로, 개인자유 부문에서 치안 관련 항목을 뺀 점수의 평균값을 개인-치안자유 지수로 발표한다.

거시경제 지표

경제성장율, GDP per capita등의 거시경제변수 자료는 해리티지 재단, 월드뱅크 및 OECD 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구하였다.

이들 자료들의 변수이름과 출처, 그리고, 통계적 특성치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지면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일부 변수들의 특성치는 제외 되었음을 밝혀 둔다.

변수설명/자료출처: <표 A1> 및 <표 A2>

5GDPPGR: 5-year average GDP growth rate. GDPPC: GDP per capita, EFI: Economic Freedom Index. TARIFF: Tariff Rate. GEXPP: Government Expenditure as percentage of GDP. TAXB: Tax Burden Score. PPTY: Property Right Score. FINF: Financial Freedom Score. LABF, Labor Freedom Score. GOVINT: Government Integrity Score; data for all these variables from Economic Freedom Index Data by Heritage Foundation-Wall Street Journal. PR: Political Freedom Index. CL: Civil Freedom Index by Freedom House(1 = Most Free, 7 = Least Free). PERF-S: Personal Freedom Index minus Security Index from Cato Institute(0 to 10, the lowest to the highest).

<표 A1> 주요변수 통계치

	GDPPC	5GDPPGR	PERF-S	EFI	TAXB	GEXPP	GOVINT	FINF	LABF	PPTY	TARIFF
AVERAGE	20351	3.46	6.85	62.1	22.4	33.1	44.0	51.3	59.3	54.6	5.1
MEDIAN	13671	3.70	7.01	61.8	20.8	32.3	38.2	50.0	58.1	52.5	3.6
STDEV	21223	2.46	2.04	9.7	10.7	10.8	18.7	17.4	13.8	19.4	4.2
MAX	132099	10.30	9.73	88.6	50.9	59.7	90.0	90.0	91.0	97.1	19.7
MIN	630	-4.70	1.86	27.0	0.9	11.8	11.6	10.0	28.5	6.8	0.0

〈표 A2〉 변수간 상관계수

	5GDPGR	GDPPC	EFI	PR	CL	PERF-S	PREG	TARIFF	GEXPP	TAXB	PPTY	FINF	LABF	GOVINT
5GDPGR	1.00													
GDPPC	-0.26	1.00												
EFI	-0.17	0.62	1.00											
PR	0.33	-0.23	-0.48	1.00										
CL	0.36	-0.29	-0.53	0.95	1.00									
PERF-S	-0.33	0.23	0.40	-0.58	-0.63	1.00								
PREG	0.14	-0.15	-0.16	0.01	0.03	-0.01	1.00							
TARIFF	0.09	-0.44	-0.59	0.31	0.36	-0.42	0.00	1.00						
GEXPP	-0.37	0.31	0.05	-0.29	-0.37	0.34	-0.07	-0.22	1.00					
TAXB	0.29	-0.11	-0.01	0.34	0.37	-0.41	-0.03	0.07	-0.33	1.00				
PPTY	-0.27	0.70	0.85	-0.54	-0.58	0.47	-0.13	-0.58	0.30	-0.22	1.00			
FINF	-0.22	0.56	0.78	-0.51	-0.55	0.50	-0.19	-0.50	0.19	-0.14	0.73	1.00		
LABF	-0.06	0.27	0.51	-0.15	-0.18	-0.01	-0.11	-0.21	0.11	0.13	0.38	0.27	1.00	
GOVINT	-0.27	0.70	0.80	-0.54	-0.60	0.49	-0.13	-0.53	0.36	-0.31	0.86	0.66	0.34	1.00

〈표 A3〉 국가특성 더미변수

	국가 명	더미변수 값
OECD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South Korea, Latv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D_OECD = 1
영미권	Australia, Canada, Ireland, New Zea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D_ESR = 1
정권 성향*: 사회주의/ 좌파 성향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gola, Argentina, Austria,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nin, Bolivia, Brazil, Burma, Cambodia, China,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sta Rica, Cuba, Czech Republic, Denmark, Ecuador, Egypt, El Salvador, Ethiopia, France, Guinea-Bissau, Guyana, Jamaica, Lao P. D. R., Malta, Moldova, Mongolia, Mozambique, Namibia, Nepal, Nicaragua, Pakistan, Peru, Romania, Saint. Lucia, Sierra Leone, Slovak Republic, South Africa, Sudan, Sweden, Tajikistan, Tanzani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menistan, United States, Uruguay, Vanuatu	PREG = 1

주: * 사회주의 헌법을 가진 국가, 또는, 2011-2016 기간중 대부분이 좌파 정권이 집권한.
자료: World Bank.

Transfiguration of Liberal Ideology and Liberty-Prosperity Relation

Daehong T. Jaang*

Abstract

Liberal philosophy to this day has evolved into three distinct, often contradicting, ideologies, namely, *liberalism*, *libertarianism*, and *conservatism*. Originally, liberalism, now referred to as *classical liberalism*, traces back to the notion of personal sphere which should not be violated by any socio-political intervention, which in turn was based on the concept of god-given or natural right. Differences among these competing ideologies are manifested by the degree of intervention or by the political disposition of ruling government, most vividly in the level of economic freedom and i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a nation.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clearly indicates that economic performance is strongly influenced by such factors like the level of economic freedom, the historical experiences or the tradition espoused by original liberalism, while, on the other hand, negatively affected by the ideological disposition to restrict them.

Key Words: Liberalism

JEL Classification: B20

Received: Aug. 4, 2017. Revised: Oct. 9, 2017. Accepted: Oct. 13, 2017.

* Professor Emeritus, Hallim University, 1, Hallim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252, Korea, e-mail: dtjaang13@gmail.com